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이익공유 모델' 주목

2018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주민 협동조합 사업 참여 민원·갈등 없어...안좌·자라도 주민 '태양광연금' 첫 수령

국내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발전사와 공유하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화한 이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은 커졌고 관련 민원과 분쟁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발전소 법인 자기자본 30% 또는 총사업

비의 4% 이상,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들과 발전사가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이후, 관련 민원과 분쟁은 현저하게 줄었다.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민선 6기까지만 해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익공유 조례 도입 이후 2-3년간 사업 자체를 놓고는 민원이나 분쟁은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송전선로 개설 과정에서 때때로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들끓었던 이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신안군의 이익공유 모델에 따라 개발이익 배당금(일명 태양광 연금)이 첫 지급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개발이익 배당금을 받아든 주민 일부는 "태양광이 효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인 안좌면 자라도 24메가와트(MW), 안좌면 구대리 96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발전사는 안좌면 신재생에

너지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지난 4월 26-27일 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라도 주민 279명은 17만-51만원씩 받았으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령액은 1인당 68만-20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안좌도 주민 2656명은 지난달 12만-36만원씩 받았으며, 연간 수령액은 1인당 48만-14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오는 10월이면 개발이익 배당금 수령 대상자가 기존 2개 섬(안좌도, 자라도) 2935명에서 4개 섬 7434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는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주민배당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년이 넘게 군의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과 이해로 2018년 10월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안군의 경우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구례군 전통시장 매출 3배 이상 올라...지역경제 회복세

빅데이터 활용 지역경제분석 사상초유 4162억 추정 편성

지난해 8월 수해로 4000여 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상권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수해복구 후 매출액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157개 점포가 물에 잠겼던 구례 5일시장의 경우 점포당 매출액이 5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크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소매업은 6배 이상 경증 뛰어 회복세를 이끌었다. 매출 순위는 음식점이 1위 였으며 소매업과 운송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0%의 점포가 평년에 비해서는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소비성향을 조사한 결과 구례 군민의 40%는 구례에서 돈을 쓰고, 절반이 넘는 60%는 광주와 순천, 남원 등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 점유율은 비수기인 겨울

에 50%, 성수기인 봄철에는 70% 이상으로 구례군 경제활동의 절반을 다른 지역민이 차지하고 있어 잠재적 경제성장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례군은 두 번의 추가경정예를 통해 4162억원의 예산을 편성, 수해복구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주민복지 사업 등에 총력을 쏟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모든 군민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올해가 고비인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수해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코로나19도 이겨내자"고 군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직원들이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다도해서부사무소, 섬 주민들에 쌀·식수 지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안동순)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공원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원내 거주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공원구역 내(신안-진도 일원) 도서

지역 16개 마을 223가구를 대상으로 13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원하고 더불어 식수 공급이 어려운 진도군 조도면 외방도리 등 6개 마을 47가구는 생수를 추가 지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 연안해역 사고 예방 합동점검

목포해양경찰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16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해안사고 위험구역 38개소를 선정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와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설치·보수 상태를 확인한다.

또 위험구역 분류 기준을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해 위험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갯바위나 해안가 등 관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건으로 18년 40건, 19년 45건, 20년 43건으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연안 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이 사고 위험지역인 연안 해역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강진군, 연말까지 연장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가우도 쥘트랙·오감동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원을 감면했다. 또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면서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해남군, 14개 읍면 이장에 명함 제작 배부 눈길

해남군이 14개 읍면 이장 514명에게 명함을 제작·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읍면장 회의때 나온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장 명함을 제작, 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장 명함 앞면에는 마을 이름,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넣고 뒷면에는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소재로 도안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장 명함은 효율적 직무수행을 돕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군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삼용 전국이동장연합회 해남지회장은 "이번 이장 명함 제작으로 마을 이장이라는 자부심

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마을 화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부창수 계곡면 이장단장과 양동욱 용호마을 이장이 명함을 들어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